

서효인의 '소설처럼'



떠난 이들이 어떻게든 애쓰는 노래

-김유담, '탬버린'

이번 선거도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한다. 많은 의석이 서울·인천·경기도에 몰려 있으니 산술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지역구 승부처 대부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토대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 지금의 여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대한민국 지도는 호남이 고립된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의 본질이 바뀌기는 어렵다. 지방의 인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지방의 인력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목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으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은 2기 신도시의 입주민이 되어 총선 결과를 보며 목포에 사는 어머니와 간단한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수도권 시민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해에 올라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듯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상경기도 거세게나 잔잔한 파도의 연속이었다. 시가지 불광동 반지하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인 작가 김유담의 첫 소설집 '탬버린'을 읽고 나니, 이토록 복잡하고 다난한 수도권에 제 발로 편입해 스태를 위해 발버둥쳤을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산업화 시절부터 이어진 '서울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지방은 왜소해진다. 전남남도 00군이 장래에 곧 사라진다는 예측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게

될 것이다. '탬버린'은 이토록 왜소한 지방 도시를 가가스로 떠났거나, 떠나길 바라거나, 도리어 그곳에 부들부들 다시 돌아간 청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다. 작가의 등단작인 '핀 캐리'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대신에 가장 노릇을 하던 오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오빠는 지역 주류회사의 막걸리를 운송하는 일을 했고, 새벽 운행 중 사고로 숨진다. '나'는 오빠가 남긴 수첩에서 아마추어 불링 선수였던 그가 내기 불링에 집착이라 할 정도로 몰입해 있었음을 발견한다.

社說

노동계 상생 초심으로 '대화의 장' 복귀를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에 투자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사업 철회까지 거론하며 통보한 '최후 통첩'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21대 총선 광주 지역 당선자들도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차례로 방문,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 그동안 관망 중이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최근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찾은 데 이어 어제 이 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핵심 쟁점인 '노동이사제'의 대안으로 '시민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노동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미 노동계의 요구 사항 중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노동이사제)을 제외한 모든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끝까지 노동계의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인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광주 시민의 열망을 받들고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지난 수년간 술한 이견과 갈등에도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며 불씨를 살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노사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민정 협의회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남은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알음알음 채용'은 특혜 아닌가

광주시와 전남 지역 일부 시·군들이 '코로나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고도 없이 알음알음 방식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등 타 지역 지자체들이 공개 모집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 동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거나 지인 추천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뽑고 있는 것이다.

구 64명, 광산구 53명, 동구 30명, 남구 38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동사무소와 주변의 알음알음으로 채용됐다. 이른바 '지인 찬스'인데 이는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의 경우 채용된 전남 인력 33명이 대부분 동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들로, 지인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남 인력을 각 자치구별로 자체 선발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에서 모두 227명이 채용됐다. 이들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긴급생계비나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 신청 안내와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22일 동안 근무하는 대가로 1인당 223만7000원을 받는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의 특성상 기간을 다투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주요 기업의 채용 일정마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딱한 사정을 헤아린다면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원서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취준생'들의 박탈감에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가.

문제는 '긴급인력 수월 방직'이란 명목으로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선발된 인원은 북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공공 일자리 사업에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김병욱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고령자의 임플란트 유지 관리

한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치과 의사들로부터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담당 치과 의사는 얘기했을 테지만 젊은 사람들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임플란트를 심고 20년이 경과된 후의 치아 생존율이 약 95%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결과는 적절한 관리를 받았을 때에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치아와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고정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치아의 뿌리(치근)와 잇몸뼈 사이에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조직(치주인대)이 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없더라도 치아는 약간 움직이며, 염증이 발생되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통증을 일으켜 쉽게 자각할 수 있다. 반면,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없이 직접 융합되어 있으므로 치아에 비해 움직임이 훨씬 더 적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잇몸질환 때 잇몸의 출혈, 입냄새 등으로 치과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잇몸질환을 기본으로 하고 치간 칫솔이나 물의 압력을 이용하는 구강 세정기(워터픽) 등을 이용해 구강내 세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때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담당 치과 의사에게 3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해서 염증의 유무와 잇몸뼈가 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치주염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분들은 혈당 조절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임플란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방문 간격을 점점 늘릴 수 있다.

임플란트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자연치에서 치주병(퐁치)이 발생되었을 때 임플란트에서도 치주병(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라 함)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임플란트와 잇몸 주위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의 수를 적절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더불어 나쁜 습관(이갈이나 편작적자)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치조골)는 훨씬 더 심하게 흡수된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를 고정시키는 잇몸뼈가 녹아서 음식을 깨무는 것도 어렵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 결국에는 뺄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치료법으로는 우선 스케일링과 염증 치료가 꼽힌다. 수술로는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삭제형 수술, 골이식재를 사용해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재생형 수술 등이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길이의 3분의 1 정도만 잇몸뼈에 고정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한다.

치아와 잇몸은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령이 높아지면 입안의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잇몸뼈가 녹는 것은 노화라기보다는 치주염이나 악습관 등이 더 좌우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건강 수명을 더욱 길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치아와 잇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기고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코로나19 시대,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들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완벽한 차단이다. 가계구 생필품은 광주시 관계자가 나중에 비대면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해외 입국자는 광주 도착 즉시 격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는 입장은 또 달랐다. 멀리서나마 얼굴 한 번 못 보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마저 이토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광주시의 조치가 놀랍도록 믿음직스러웠다.

이러한 안정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한 통제를 위해 고생한 방역당국과 밤낮없이 땀흘린 의료진들의 노고,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 한편에는 집단 감염 위험 집단 전수 조사, 확진자 동선 안내, 자가 격리 통제, 해외 입국자 관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있었다.

새벽녘 찬 공기 속에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수고하는 광주시 관계자들의 모습에 감사함과 송구함이 밀려왔다.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공무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안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리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그동안 우리가 파랑새 마냥 동경해오던 선진국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돌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세계 속에 선진 모범 사례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며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고,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며 안팎으로 힘을 모으는 '줄탁동

시'의 사회가 바로 이 곳이라는 점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우리 광주도시철도역시 함께 했다. 월 2회 진행하던 전동차 방역을 주 2회로 늘리고 매일 역사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살균 소독하며 그야말로 온 힘을 방역에 쏟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수칙 홍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감성 이벤트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만 이전과 마음가짐이 다소 다르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을 곧 세계인이 따라 걸게 되리라는 긍지로 삼음이 꼭직해진다.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평가가 내일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긴장하는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렵지만은 않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광주역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모든 분들께 큰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전한다.

최근 미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딸이 돌아왔다. 그렇지 않아도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늘 걱정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때가 때인지라 더욱 안스럽던 참이었다. 딸 아이는 KTX의 해외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광주로 들어왔다. 밤을 이겨낸 해가 조심스레 동편 하늘에 비쳐들 때쯤 방호복을 입은 광주시 방역 담당자들의 긴장된 분위기가 열차 도착을 알렸다. 해외 입국자들은 광주에 발을 딛자마자 광주시 관계자의 인솔 아래 전용 차량으로 옮겨졌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당분간 격리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원 치료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예상대로 딸의 얼굴을 잠깐 보는 것도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 싶었다. "와" 절로 탄성이 터졌다. 어제 중심사 톨게이트를 지나 무등산 아래를 달리며 느낀 기분이다. 무등산 자락의 미술관 가는 길, 철쭉 등 화산만 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막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한 무등산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미술관에 도착해서 무등산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승규 관장은 지극히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무등산이,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자연이 일신 탐버러 사용, 이 모두 일상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켜 수 있는 것들이다. "오만한 우리에게 지구

無等鼓 🥁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 싶었다. "와" 절로 탄성이 터졌다. 어제 중심사 톨게이트를 지나 무등산 아래를 달리며 느낀 기분이다. 무등산 자락의 미술관 가는 길, 철쭉 등 화산만 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막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한 무등산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미술관에 도착해서 무등산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승규 관장은 지극히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무등산이,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자연이 일신 탐버러 사용, 이 모두 일상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켜 수 있는 것들이다. "오만한 우리에게 지구

스와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 등이 주축이 돼 개최한 행사에서 '지구의 날'이 선포됐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22일~28일)을 선포,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생활 수칙 지키기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비닐 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 컵 대부분 대했던 자연이 일신 탐버러 사용, 이 모두 일상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켜 수 있는 것들이다.

지구의 날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동네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동네 주변에 이렇게 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는 줄 몰랐다. 자연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지구는 아프다고 수없이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인간들은 줄곧 외면해 왔다. 어리석은 우리는 재앙이 닥치면 그제야 뒤를 돌아볼 줄 안다. 지구의 날, 작은 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3 columns: Section/Category, Contact Info (FAX/Phone), and Address.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logos, and contact details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